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준비 본격

전북교육청, 학령인구 감소·지역소멸 대응 위해…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천호성 교육감이 취임 첫날 두 번째로 결재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오후 4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기초지자체 담당 팀장, 풀뿌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전북형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방향과 전략을 비롯해 거버넌스 구축, 기관 간 협약 체결, 운영기획서 작성 등 공모 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공모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공모 신청과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운영기획서 수립 및 실행, 특례 발굴과 재정 연계 등 실무 협의

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중 지자체와의 협약(MOU) 체결, 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등을 잇달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폐교 활용 유아 전용 체험시설 문 열다

순창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개원
자연친화적 놀이·미래교육 접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이 14일 순창군 구림면에 조성한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개원식을 갖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은 옛 구림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유아 전용 체험시설로, 총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만461㎡, 연면적 214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번 분원 개원으로 순창을 비롯해 임실, 남원 등 전북 동부권 지역 유아들의 놀이와 체험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원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배우는 실외 놀이마당과 모험별·창의별·미래별·상상별 등 다양한 주제의 실내 체험공간을 갖췄다. 신체활동은 물론 창의놀이와 디지털 기반 놀이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자연친화적 놀이와 미래교육을 접목해 생태 감수성과 창의성, 디지털 역량을 높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앞으로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순창군의 문화·관광·생태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전국 단위 토요 가족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천호성 전북특별자



14일 순창군 구림면에서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최영일 순창군수 등 참석자들이 내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치도교육감과 최영일 순창군수,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행사는 분원 설립 과정과 향후 운영 계획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와 격려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식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실내·외

체험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천호성 교육감은 “유아기는 평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이 자연 속에서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공간이자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가능성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전북 유아교육의 새로운 거점이 되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미래이자 전북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의 개원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교육 협력을 통해 교육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전국 최고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순창=이양원 기자

자살예방 리터러시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이 학부모와 교원의 자녀 정신건강 이해를 높이고 자살예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살예방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전주교육지원청 별관 영재교육원 1층 시청각실에서 열리며, 전주지역 초·중·고 학부모와 교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은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변화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모와 교원이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반려동물과의 사별, 전학, 부모의 이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사망 등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변화와 상실 경험이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건강한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살예방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직업계고, AI·미래산업 중심으로 학과 개편

4개교 9개 학과 재구조화 사업 선정… 교육부 41억25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도내 4개 직업계고등학교 9개 학과가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진경여자고등학교 등 4개교다. 이 가운데 군산여자상업고와 전주생명과학고, 진경여자고는

올해 전북 글로벌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여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산여자상업고는 AI 기반 비즈니스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IT금융과와 공행정과를 각각 ‘AI핀테크’와 ‘카페비즈’로 개편한다.

전주생명과학고는 지역 전략·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림조경과와 농업토목과를 통합한 ‘도시조경과’를 신설하고, 식품과학과는 바이오품과, 작물산업과와 산업기계과는 ‘스마트팜과’로 개편한다.

전주여자상업고는 산업 변화에 맞춰 회계정보과를 ERP시스템과로 변경

하고, 사무행정과는 ‘뷰티서비스과’와 ‘외식서비스과’로 재편해 AI와 빅데이터, 외식·미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진경여고는 관광·레저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사무과를 ‘관광콘텐츠과’로 개편한다.

선정된 학교들은 전북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과당 3억7,500만원씩 총 41억2,500만원을 지원하며, 학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컨설팅과 시설 환경 개선, 교원 역량 강화 이수 등 학과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교육감협의회 오늘 전주서 총회…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논의 등 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가 15일 전주시 덕진구 데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1대 협의회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을 선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간 2026년 임금교섭 방식 결정과 교섭대표 교육감 선정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한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 의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총회 의결 사항이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당일 오후 6시 이후 배포되는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한 뒤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한편 총회가 열리는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행사장 앞에서 전주미산초 교사들과 전북지역 교사 50여 명이 참여하는 피켓시위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사들은 현실판 참교

육은 아동복지법 개정 을 내걸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드라마 ‘참교육’보다 더 심각한 교권침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주미산초 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두 차례 형사고발과 세 차례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진행됐지만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고등학교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25 기프트카 유소년 스포츠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4인승 최신형 버스를 지원받았다.

현대차그룹 ‘기프트카’ 날개

‘야구 명가’ 전주고, 44인승 최신형 버스 지원받아

최근 2년간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11명의 지명자를 배출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전종의 야구 명문' 전주고등학교(교장 장경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25 기프트카 유소년 스포츠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4인승 최신형 버스를 지원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2024년 전국대회 2관왕 달성(전국체전 포함 3관왕)에 이어, 2025-2026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대거 11명의 선수가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는 등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버스 지원은 명실상부한 선수 육성의 요람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하룡점정'이 될 전망이다.

미스터 육포버 박정권 '불멸의 포수' 박경원 '조선의 4번 타자' 최형우 등 KBO 레전드들을 키워낸 전주고는 최근 눈부신 성과로 야구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제작된 청룡기와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39년 만에 전국을 제패한 데 이어, 선수 육성에서도 괄목할 만한 결실을 보았다. 2025년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서영준, 엄준현, 이한림, 이호민, 정우주, 최윤석 등 6명이 지명되었고, 이어진 2026년 드래프트에서도 고준휘, 김유빈, 박지훈, 박한결, 정재훈 등 5명이 프로팀의 부름을 받으며 단 2년 만에 11명의 프로 선수를 배출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처럼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주고에게도 유일한 고민은 선수단의 '날'이었다. 전국 각지로 대외와 훈련을 떠날 때마다 버스를 임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피로와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선수와 학부모의 몫이었다.

이번 기프트카 지원은 오랜 숙원하던 안정적인 이동 수단을 확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오상근 기자

학부모와 함께 건강한 학교급식 만들기

전북교육청 학부모 정책모니터단, 삼례중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4일 삼례중학교에서 '2026년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4차 오프라인 활동'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은 학교급식 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찾아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현장 중심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함께 만드는 학교급식 정책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정책모니터단은 저탄소 환경급식과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 운영 우수학교인 삼례중학교를 방문해 급식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학교 운영 및 학교급식 우수사례를 비롯해 영양·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운영 사례, 저탄소 환경 급식 실천 사례, 식품안전에 학생을 위한 대체식 제공 사례 등을 공유받았으며, 학교급식 시식과 배식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학교 관리자와의 간담회에서는



학교급식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개선 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느낀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며 발대식과 연수, 온라인 모니터링, 우수학교 방문, 가정 연계 식생활 실천 캠페인,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청은 정책모니터단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학교급식 정책은 물론 영양·식생활교육 자료 개발과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내부 실무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복합위기학생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 내부 실무 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서 간 협력 방안과 실질적인 실행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정책협의체에서 마련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방향과 절차를 토대로 실제 학생 지원 과정에서 유관 부서의 역할을 구

제화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상담, 생활교육, 기초학력, 교육복지, 다문화교육, 진로교육, 안전·건강, 특수교육 등 학생 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 현황과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복합위기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